

## 국내 의과대학 강좌평가제 운영 실태 분석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교육실

채 수 진 · 임 기 영

= Abstract =

### An Analysis of Course Evaluation Programs at Korean Medical Schools

Su-Jin Chae, EdD., Ki-Young Lim, MD, PhD.

*Office of Medical Education, Ajou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Purpose:** Following the first in 1990, the use of course evaluations (CE) by medical schools across the Republic of Korea has grown steadily since 1997.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se CE programs and to make general recommendations for further implementation.

**Methods:** A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by mail. From June 20 to September 22, 2006, data was obtained from 38 of the 41 (93%) medical schools in the country. Of those who responded, 27 schools also sent their CE forms as requested.

**Results:** There was little difference among the 38 medical schools in the main body, methods, frequency, grades, systems of evaluation, and types of survey. Evaluation criteria such as instructor effectiveness, course management efficiency, and student satisfaction showed high frequency, whereas issues concerning learning objectives and workload were less common. In contrast, the stated purposes of employing CE varied from school to school. While 92% of the respondents regarded improvement to the quality of instruction as the goal of their programs, 32% indicated that CE results also factored in administrative decisions concerning promotion, tenure, and salary increases.

**Conclusion:** In addition to embracing the expanding role and influence of CE in Korean medical education, schools must proactively enact measures to enhance further implementation. First, evaluation criteria should be better formulated to increase the consistency, reliability, and validity of CE results. Next, to promote efficiency, the scheduling and methodology of CE administration should carefully consider the medical curriculum. Finally, professional attitudes should be fostered to recognize the value of CE as a tool for raising educational standards overall.

---

**Key Words:** Course Evaluation, Faculty Evaluation

---

교신저자: 채수진,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교육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산5번지

Tel: 031)219-4465, Fax: 031)219-5179, E-mail: edujin@ajou.ac.kr

\* 이 논문은 2006년 의학교육학회 연구장려상으로 수행되었음.

## 서 론

지난 1995년 5·31 교육개혁 조치와 함께 대학교육 개선에 대한 국가적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교육의 수월성과 질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대학교수 차원의 수준향상이 매우 시급한 과제로 등장하였다. 특히, 최근 고등교육 기회의 확대에 따른 학습자 중심체제로의 변화는 교수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해석을 요구하고 있으며 한편, 수업 개선을 통해 교수의 자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강좌평가제<sup>1)</sup>가 매우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었다 (Davidovitch & Soen, 2006; Fernand & Adela, 2003).

강좌평가제가 국내에 도입되고 본격적인 시행이 이루어진지 10여 년이 지난 지금, ‘학생에 의한 강좌평가’는 교수평가에 대한 인식을 개선시키고 대학의 총체적인 질 향상과 맥락을 같이하며, 교육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장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Kim *et al.* (2001)에 의하면, 미국의 경우 대학의 97%가 교수평가를 위하여 강좌평가제를 활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전국의 191개 대학 중 153 (84.5%)개교가 교수업적평가 제도의 일부로서 강좌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부분의 대학에서 강좌평가제가 실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좌평가 시행에 있어서 각 대학마다 독특한 대학 구성원들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합리적 평가도구를 개발하고, 그것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시행하며, 평가결과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등 강좌평가제의 체계 및 운영과 평가도구의 신뢰성과 타당성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Kim, 2005; Chen & Hoshower, 2003; Margaret & Diao, 2002; Williams, 2001; Johnson, 2000).

1) 우리나라 대부분의 대학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강의 평가’는 영어의 teaching effectiveness, teacher evaluation, course evaluation, faculty assessment 등의 용어를 지칭하는 것으로 엄밀한 의미에서 ‘강좌에 대한 수업평가’로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Lee, 2005). 본 연구에서는 의과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는 ‘강좌에 대한 수업평가’를 ‘강좌평가’로 통일하여 사용한다.

이러한 문제 제기는 의과대학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의과대학의 강좌평가제는 지난 2000년부터 실시된 의과대학 인정평가 항목에 포함되었으며 (KIMEE, 2006), 또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교수업적평가제도와 관련하여 대학마다 강좌평가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강좌평가제의 시행과 운영이 충분한 논의 없이 단기간 진행되어 의과대학에 적합한 체계적인 척도나 기준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을 뿐 (Chae *et al.*, 2001), 의학이라는 학문 특성이나 수업의 특성에 맞는 강좌평가제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학생에 의한 강좌평가제’가 보편화된 미국의 경우, 과목유형, 수업방법, 수강인원 등에 따라 강좌평가의 문항 수, 문항내용, 평가시기 등을 교수가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으며, 평가 결과를 학생들에게 공개하여 학생의 피드백이 차기 수업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Han *et al.*, 2005; Kim *et al.*, 2001). 따라서 우리나라 의과대학도 의과대학 수업의 특징과 구성원의 요구사항이 반영된 강좌평가 문항을 개발하고 강좌평가 결과가 수업의 지속적인 질 향상에 활용될 수 있는 운영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강좌평가제의 중요성이 새롭게 부각되는 시점에서 의과대학에서의 강좌평가제에 대한 각 대학의 정보가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국내 의과대학에서 실시되고 있는 강좌평가제의 운영 실태를 조사하여 전국 의과대학의 강좌평가제도의 시행 현황과 실태에 대한 자료를 구축하고, 보다 바람직한 강좌평가제의 개선과 운영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 대상 및 방법

### 가. 조사 대상

전국 41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2006년 6월 20일부터 9월 22일까지 우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해당 대학의 강좌평가 담당자가 직접 기재하도록 공식적으로 요청하였으며, 또한 작성된 ‘강좌평가운영실태’ 설문지와 함께 해당 대학에서 사

용하는 ‘강좌평가 설문지’ 1부를 회송 시 동봉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 결과, ‘강좌평가운영실태’ 설문지는 41개 의과대학 중 39개 대학 (95%)이 회신하였으며, ‘강좌평가 설문지’는 39개 대학 중 28개 대학 (72%)이 회신하였다. 28개 대학 중 ‘임상실습’ 설문지를 보내온 2개 대학과 ‘교수 개인별’ 설문지를 보내온 1개 대학의 설문지를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여, 결과적으로 분석 대상의 설문지는 총 25개였다.

**나. 조사 도구**

설문지는 국내 의과대학의 강좌평가제 현황 및 실태를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총 16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이 중 이어나 의견을 직접 기재하는 문항은 5개였다. 조사 내용은 크게 의과대학에 대한 일반적 사항이 3개 (대학유형, 평가실시 연도, 학교규모), 실제적인 강좌평가 운영에 대한 내용이 9개 (평가주관, 평가방식, 설문유형, 문항개발방법, 평가실시 학년, 평가실시 시기, 교수개인별 평가실시, 평가목적), 평가 이후 활용 방법에 대한 내용이 3개 (평가결과 공개, 개선보고서 작성, 평가회 개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의과대학에서의 강좌평가의 문제점 및 개선 사항을 묻는 내용이 1개였다.

**다. 분석방법**

양적 자료는 SPSSwin 12.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빈도와 비율에 의한 일반적 경향성을 분석하였고, 교차분석을 실시하여 학교규모에 따른 평가주관부서와 평가방식에 따른 설문지 유형을 알아보았다.

25개 의과대학의 설문 내용은 Lee (2005)가 제시한 교수설계이론에 따라 정리하고, 정리된 항목별 문항의 빈도를 조사하였다. 정리된 문항 수는 총 320개였으나 한 문장에 두개 이상의 항목을 내포한 문항을 분리하여 빈도수에 포함하였기 때문에 분석대상의 문항수가 늘어나서 최종적으로 분석에 사용한 문항은 328개였다. 각 대학의 설문 내용은 Excel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는데, 설문 내용을 크게 학습자 관련, 교수 관련, 수업 관련, 총평 등으로 구분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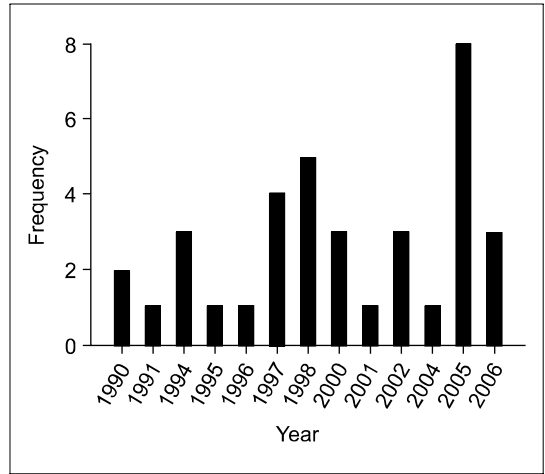


Fig. 1. Year of initiating course evaluation.

뒤 다시 16개의 평가 범주로 나누어 범주별로 주제를 입력하여 정리된 항목별 문항의 빈도를 조사하였다.

**결 과**

**가. 강좌평가 운영실태 분석**

**1) 학교별 강좌평가 실시 시기**

국내 의과대학의 강좌평가는 Fig. 1과 같이 1990년도에 처음 실시되었고, 강좌평가를 실시하는 대학이 2006년 현재까지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1997년부터 2000년 사이에는 12개 대학이 강좌평가를 실시하였고, 2005년도 한 해에는 무려 8개 대학이 강좌평가를 처음 실시함으로써 가장 급속한 증가가 이루어진 시기임을 알 수 있다.

**2) 평가주관부서**

강좌평가는 대학본부, 의과대학, 의학교육실 (또는 교실), 해당 과목의 교실, 등 다양한 부서에서 평가를 주관하고 있었다. Table I에 의하면, 38개 대학 중 대학본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대학이 13개, 의과대학이 8개, 의학교육실이 11개였으며, 기타로는 의과대학과 의학교육실이, 그리고 대학본부와 의학교육실이 함께 주관한다고 대답한 대학이 각각 1개와

**Table I.** Level of Authority for Administration of Course Evaluation

Class size	Level of authority					
	University	Medical school	Office of medical education	Department	Other	Total
40 or less	2 (5.3)	2 (5.3)	6 (15.8)	0	1 (2.6)	11 (28.9)
41~80	6 (15.8)	4 (10.5)	1 (2.6)	0	2 (5.3)	13 (34.2)
81~120	5 (13.2)	2 (5.35)	1 (2.6)	0	2 (5.3)	10 (26.3)
121 or more	0	0	3 (7.9)	1 (2.6)		4 (10.5)
Total	13 (34.2)	8 (21.1)	11 (28.9)	1 (2.6)	5 (13.2)	38 (100)

**Table II.** Scope of Course Evaluation

Format	Scope				
	General	Medical	Course-specific	Other	Total
Paper	1 ( 2.6%)	13 (34.2%)	4 (10.5%)	0	18 (47.4%)
On-line	10 (26.3%)	2 ( 5.3%)	4 (10.5%)	4 (10.5%)	20 (52.6%)
Total	11 (28.9%)	15 (39.5%)	8 (21.1%)	4 (10.5%)	38 (100%)

**Table III.** Method of Developing Course Evaluation Instrument

Method	Frequency
Medical education specific criteria	20
Questions adapted from general form	11
Others	4
Unknown	3
Total	38

4개 대학이 있었다. 특히, 학생 수 120명 이상의 4개 대학 중 3개 대학이 의학교육실에서 강좌평가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설문 유형 및 설문 방식**

Table II에 의하면, 설문에 응답한 38개 의과대학 중 온라인으로 평가를 실시하는 대학은 20개 대학이었으며, 18개 대학은 인쇄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강의실에서 직접 실시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

었다. 설문지 유형별로는 학교공통 설문지를 사용하는 학교가 11개, 의과대학에서 개발한 설문지를 사용하는 학교가 15개였으며, 수업별로 상이한 설문지를 사용하는 학교는 8개로 나타났다. 여기서 수업별 설문지란 실험/실습용, 기초과학 강의용, 통합교육 강의용, 환자/의사/사회용 등 수업 유형에 따른 설문지를 의미한다. 온라인 방식으로 강좌평가를 시행하는 20개 대학 중 의과대학에서 자체적으로 설문 문항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대학은 2개 대학이고, 수업별로 다른 설문 문항을 사용하는 대학은 4개 대학이 있었다.

**4) 평가도구 개발**

강좌평가 도구를 어떻게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결과는 Table III과 같다. 즉, 설문에 응답한 38개 대학 중 20개 대학은 의과대학 특성에 맞는 도구를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대답하였으며, 의과대학의 특성과 상관없이 대학본부에서 개발한 설문지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대학이 11개로 나타났다. 그밖에도 의예과는 대학본부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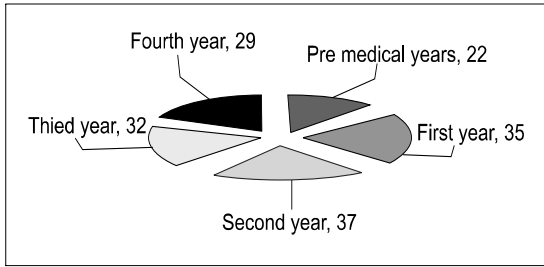


Fig. 2. Academic grade levels implementing course evalu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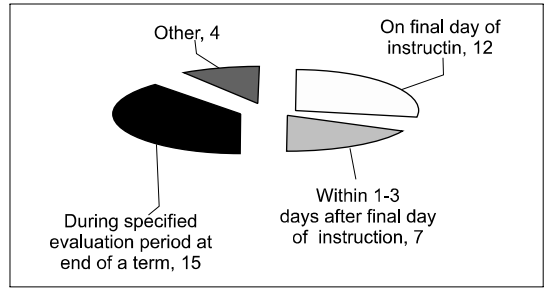


Fig. 3. Time frame of course evaluation request.

Table IV. Purpose of Course Evaluation

Purpose	Number of schools (% of total)
To determine whether to grant tenure/promotion to the instructor	13 (34.2)
To improve the instructor's quality of teaching	35 (92)
To determine whether to renew the instructor's contract	2 (5.3)
To serve as standard of accreditation by KIMEE	8 (21)

서, 의학과는 의과대학에서 개발한 설문지를 따로 사용한다고 응답한 대학이 4개, 문항이 어떻게 개발되었는지 잘 모르겠다고 대답한 대학이 3개였다.

5) 평가 시행 학년

강좌평가를 실시하는 학년을 알아본 결과, 의예과는 22개 대학, 본과 1학년은 35개 대학, 본과 2학년은 37개 대학, 본과 3학년은 32개 대학, 본과 4학년은 29개 대학이 강좌평가를 실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Fig. 2).

강좌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학년이 있다면 그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 본과 3학년과 4학년은 교육과정이 임상실습으로 되어있어서 강좌평가를 시행할 수 없다는 대답이 가장 많았으며, 그밖에도 인력 부족, 평가방법 부재, 교실 간 합의 부족, 실습 간 내용 차이 등을 지적하였다. 일부 대학의 경우 의예과 학생들은 자연계열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듣고 강좌평가를 시행하기 때문에 의과대학이 평가에 대한 관리를 직접적으로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6) 설문 실시 시기

Fig.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평가를 시행하는 시기는 대학마다 차이가 있었다. 수업을 마친 당일 설문지를 이용하여 평가를 실시하는 대학이 12개 대학, 수업을 마치고 1~3일 내에 실시하는 대학이 7개 대학, 학기말에 일정기간 평가기간을 두고 실시하는 대학이 15개 있었다. 그 밖에 평가시기가 특별히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교실에서 요청한 날 평가하는 대학도 있었다.

7) 교수 개인별 평가

수업에 대한 강좌평가와는 별도로 '교수 개인별 평가를 실시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설문 응답한 38개 대학 중에 교수 개인별 평가를 실시하는 대학이 18개, 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대학이 20개로 나타났다. 교수 개인별 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그 이유로, 1시간 내지 2시간 정도 강의하는 교수들을 학생들이 모두 기억하고 평가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8대학), 다음으로, 관리 및 인력 부족 (3대학), 평가 시스템 부재 (2대학), 평가 결과에 대한 낮은 신뢰도 (1대학) 등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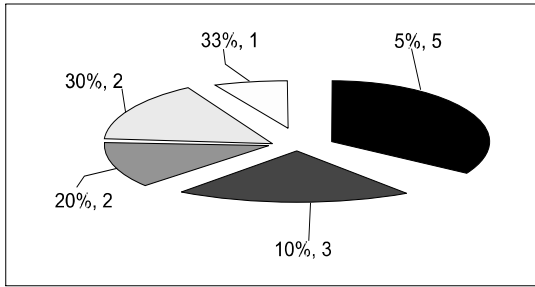


Fig. 4. Relative weight of course evaluations as factor in instructor's overall performance recor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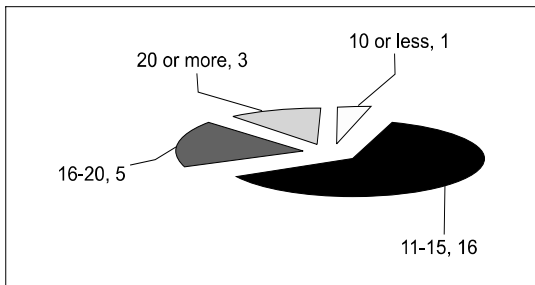


Fig. 5. Number of course evaluation items.

#### 8) 평가 목적

강좌평가를 실시하는 목적을 묻은 질문에 대한 결과는 Table IV와 같다. ‘수업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라고 대답한 대학이 35개로 가장 많았으며, 12개 대학은 교수업적을 평가하기 위해서 실시한다고 대답하였다. 이밖에도 강좌평가 실시여부가 의과대학 인정평가 기준이기 때문이라고 대답한 대학이 8개 있었으며, 강사 책임유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하기 위해서라고 대답한 대학도 2개 있었다.

교수업적평가에 교육점수를 반영하는 12개 대학을 대상으로 강좌평가 점수의 반영률을 조사한 결과, 5%반영하는 대학이 5개로 가장 많았고, 10%는 3개 대학, 20%는 2개 대학이 있었으며, 30%이상 반영한다고 대답한 대학도 3개 대학이 있었다(Fig. 4).

#### 9) 결과 공개 및 개선보고서 작성

강좌평가 결과는 일반적으로 교수가 직접 자신의 점수를 인터넷으로 조회하거나 통지문을 통해 개별

Table V. Accessibility of Course Evaluation Result

Accessibility	Frequency (%)
Instructor only	18 (47.5)
Department chair(s) only	4 (10.5)
Dean(s) only	1 ( 2.6)
Department chair(s) and instructor only	4 (10.5)
All	11 (28.9)
Total	38 (100)

\* multiple responses

적으로 결과를 전달받고 있었다. Table V에 의하면, 강좌평가 결과를 해당 교수/강사에게만 공개하는 대학이 18개 대학으로 가장 많았으며, 학장, 주임교수와 해당교수/강사 모두에게 공개하는 대학은 11개 대학이었다. 이밖에도 해당 교실 주임교수에게만 공개하는 대학이 4개 대학, 주임교수와 해당 교수/강사에게만 공개하는 대학이 4개 대학, 학장에게만 공개하는 대학이 1개 대학이 있었다.

평가 결과에 대한 수업개선보고서를 작성한다고 대답한 대학은 13개 대학이 있었으며, 강좌평가 결과를 토대로 평가보고회를 개최한다는 대학 또한 13개 대학이 있었다.

#### 10) 의과대학 강좌평가에 대한 담당자 의견

의과대학에서 강좌평가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를 대상으로 강좌평가의 문제점과 개선사항에 대해 묻은 결과, 문제점으로는 강좌평가제도에 대한 교수와 학생의 관심부족 (4명), 의과대학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설문지 (4명), 교수 개인별평가의 어려움 (3명), 설문지의 낮은 수거율 (3명), 형식적인 평가일 뿐 실제적인 수업개선이 없음 (1명), 업적평가에 반영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반영하지 않음 (1명) 등이 지적되었다.

개선 사항으로는 의과대학 특성을 반영한 평가문항 및 준거 개발 (8명)과 인터넷을 이용한 평가시스템 구축 (6명) 등을 가장 많이 지적하였으며, 이밖에도 학생들의 참여율과 교수의 관심유도 방법 강구 (4명), 교수 개인별 평가방법과 평가 결과에 대한 피

**Table VI.** Content and Frequency of Items

Dimensions	Factors	Contents	Frequency (%)
Learner	Student information	learner's preparation, participation, attitude, expected grade point, degree in possession	27 (8.2)
	Faculty attitude	instructor's preparation, enthusiasm, attitude, fondness for students	21 (6.4)
Instructor	Managing lectures	lecture on time, check student's attendance, supplementary lecture, reward system lecture on time, student's attendance checking, supplementary lecture, reward in learning	26 (7.9)
	Classroom skills	individual rapport, encouraging student's participation, motivation, speed of lecture, opportunity to ask questions, stimulation of class discussion, pace	35 (10.7)
Instruction	Learning objectives	appropriateness of course objectives, correlation between objectives and contents, clarity, specific	13 (4.0)
	Course plan	relationship between course plan and content	24 (7.3)
	Sequence	logical structure, levels, relation, repetition, systemic, organization of the course	17 (5.2)
	Level of difficulty	course difficulty, easy to follow along	17 (5.2)
	Workload	subject workload	11 (3.4)
	Course material	text, transcript of lectures, assistive material	25 (7.6)
	Teaching methods	using various tools and techniques for instruction, appropriateness of experimentation, style of presentation	22 (6.7)
Overall opinion	Assignment	feedback, difficulty, appropriateness of amount, covering course content and goals	17 (5.2)
	Evaluation	coordination with major course objectives, standards/criteria, fairness, grading systems, difficulty, exam periods, informing student of exam score	23 (7.0)
	Facilities	class size, environment of instruction	3 (0.9)
	Satisfaction	general quality, overall course and instructor	32 (9.8)
	Recommendations	comments, suggestions about course or instruction	15 (4.6)
Total			328 (100)

드백 방법 마련 (1명) 등의 의견이 있었다.

**나. 강좌평가 설문 내용 분석**

**1) 강좌평가 문항 수**

강좌평가 설문지를 보내 준 25개 대학의 설문 문항수를 조사한 결과 (Fig. 5), 7개부터 26개까지 다

양하게 나타났다. 범주별로 살펴보면, 11~15개 문항을 사용하는 대학이 25개 대학 중 16개로 가장 많았으며, 16~20개 문항이 5개 대학, 20개 이상의 문항을 사용하는 대학이 3개 대학, 10개 이하가 1개 대학으로 조사되었다.

## 2) 강좌평가 문항 빈도

설문 내용 328개 문항을 교수설계이론에 따라 크게 학습자 관련, 교수 관련, 수업 관련, 총평 등 4개의 영역으로 분류하고 문항의 빈도를 살펴보았다. Table VI에 의하면, 교수 관련 영역에서는 ‘수업기술’ 항목이 35개 (10.7%)로 빈도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수업관리’ 항목이 26개 (7.9%), ‘교재 및 학습자료’ 항목이 25개 (7.6%), ‘수업계획서’ 항목이 24개 (7.3%) 등의 순이었으며, 학습자관련 영역에서 ‘학습자 정보’ 항목은 27개 (8.2%), 총평 영역에서는 수업만족도 항목이 32개 (9.8%)로 비교적 높은 빈도를 보였다. 강좌평가 문항으로 높은 빈도를 보이는 항목을 정리하면, 수업기술, 수업만족도, 학습자정보, 수업관리, 교재 및 학습자료, 수업계획서 등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수업기술’이란 학생과의 상호작용, 참여 유도, 학습과정 운영 등의 내용을 말하며, ‘수업관리’는 교수가 수업시간을 엄수하였는지 또는 보강이나 자율학습시간을 주었는지 등의 내용이 해당한다. ‘학습자 정보’란 학습자들이 자신의 준비도나 태도 등을 평가하는 문항을 의미하는데 예를 들어, ‘나는 수업에 충실하게 임하였다’, ‘나는 출석을 잘 하였다’ 등을 의미한다.

반면, 수업 관련 영역 중 ‘수업환경’ 항목이 3개 (0.9%)로 빈도가 가장 낮았으며, ‘학습부담’ 항목이 11개 (3.4%), ‘학습목표’ 항목이 13개 (4.0%) 순이었고, 총평 영역에서는 ‘건의사항’ 항목이 15개 (4.6%)로 상대적으로 낮은 빈도를 보였다. 따라서 많은 대학들이 강의실 환경이나 교육시설, 학습량, 학습목표, 그리고 강의내용의 적절성 등과 같은 내용을 설문 문항으로 반영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 고 찰

지난 90년 일부 대학에서부터 도입하기 시작한 강좌평가제는 현재 전국의 대부분의 대학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강좌평가 결과를 교수업적평가제 실시와 더불어 교수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대학도 점차 늘고 있다. 강좌평가제는 이미 개인적 개선의 차원

이 아니라 대학의 질적 통제의 개념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이다 (Han et al., 2005). 따라서 학생에 의한 강좌평가를 수업의 질적 개선이나 교수업적평가에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강좌평가의 합리적 개발, 효과적인 적용, 그리고 신중한 결과 해석 등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의과대학은 다른 단과대학과 달리 그 특수성을 고려하여 강좌평가를 실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즉, 의과대학은 한 과목에 여러 명의 교수가 수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학기제가 아닌 쿼터제로 운영하거나 통합교육과정의 경우 1주 내지 2주 정도 수업을 실시한다. 이러한 의과대학 교육과정 체계에 맞추어 통일된 강좌평가제를 시행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의과대학들은 의과대학만의 평가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의과대학이 보다 바람직한 강좌평가제를 개발하고 운영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 보다 바람직한 강좌평가제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었다. 앞으로 국내 의과대학에서 시행하고 있는 강좌평가제의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문제점을 분석하여 합리적인 강좌평가제의 정착을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먼저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설문에 응답한 의과대학 중 현재 강좌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대학은 38개이며, 2007년 도입예정 대학이 1개였다. 의과대학은 1990년부터 강좌평가를 도입하였고, 2000년을 기점으로 거의 대부분의 대학이 시행하고 있었다.

둘째, 강좌평가를 시행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주관부서가 대학본부, 의과대학, 의학교육실(교실) 등 대학마다 다르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의예과 강좌평가를 대학본부가 담당하는 학교가 상당수 있기 때문이며, 또한 단과대학별, 수업유형별로 차이를 두고 강좌평가를 실시하는 대학이 늘어남에 따라 주관부서가 분산된 것으로 파악된다.

셋째, 강좌평가 실시 방법을 알아본 결과, 온라인 상에서와 설문지를 활용한 방법이 절대적으로 나타났다. 설문지를 사용하는 의과대학 중에는 평가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절감, 행정적인 측면에서 자



료수집과 결과통보의 편리성 등의 긍정적 측면으로 인해 온라인 평가시스템으로의 전환을 희망하고 있었다.

넷째, 대학에서 사용하는 설문지의 성격을 묻은 질문에 20개의 의과대학이 '의과대학 성격에 맞는 설문지를 사용한다'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의과대학 강좌평가제에서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대학의 특성에 맞는 문항을 개발해야 한다고 상반된 내용을 지적함으로써 현재 사용하고 있는 설문 문항 내용에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설문에 응답한 35개 의과대학이 강좌평가의 최우선적인 목적을 수업의 질 개선에 두고 있었으며, 12개 대학이 평가결과를 교수업적평가에 반영하고 있었다. 업적평가 반영 비율은 학교마다 5~30%로 큰 차이가 있었다. 대부분의 대학이 평가결과를 교수 개인에게만 공개하고 있었으며, 결과에 대해서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의 노력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25개 대학의 강좌평가 설문지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대학이 11~15개 정도의 문항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평가 내용으로는 학생과의 상호작용, 참여 유도, 교수의 준비도, 수업시간 엄수 등과 같은 '교수 관련'에 관련된 영역의 빈도가 높은 반면, 학습량, 학습수준, 학습목표와 수업내용과의 관련성, 교과내용의 체계성, 강의실 환경 등을 묻는 '수업 관련' 영역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빈도를 보였다.

이상의 국내 의과대학 강좌평가 운영 실태 결과를 토대로 효율적인 강좌평가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강좌평가제에 대한 전문적 연구 및 교육에 대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강좌평가의 문항개발 및 운영을 원활하게 하고 수업개선에 관한 전문적인 자문과 지원을 하기 위한 주관부서나 상설기관 등을 설치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둘째, 평가양식 및 평가시기의 획일성을 탈피해야 한다. 의예과, 기초의학, 임상의학, 인문사회의학, 등 의과대학의 교육과정을 고려하여 각 수업의 특징에 맞는 평가양식 및 평가방법을 채택할 필요

가 있다. 또한 학기말이나 수업 종료 후 실시되는 1회적 평가가 아닌 학기 중에 한 번 더 실시하는 중간 평가제도가 도입되어 수업의 질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강좌평가의 의도를 충실히 반영해야 할 것이다.

셋째, 평가 질문이 비교적 상세하게 마련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의과대학이 10여 개의 객관식 문항과 1~2개의 주관식 문항을 강좌평가 내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수업 중 학생들의 생각을 반영하고 신뢰로운 평가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좀 더 상세한 문항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평가 내용 또한 교수(teaching) 관련 내용뿐만 아니라 수업계획, 수업내용, 평가방법 등의 수업 관련 영역을 포함해야 할 것이다.

넷째, 수업개선을 위하여 평가결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교수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평가결과를 공개하여 수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수가 실질적으로 수업을 개선할 수 있도록 결과보고회나 개선보고서 작성 등과 같이 지속적으로 평가의 결과를 해석하고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Chae, S.J., Chang, K.H., Kang, H.S., & Kim, W.S.(2001). Clerkship evaluation by students using questionnaire. *Korean Journal of Medical Education*, 13(1), 131-141.
- Chen, Y., & Hoshower, L.B.(2003). Student Evaluation of Teaching Effectiveness: an assessment of student perception and motivation. *Assessment & Evaluation in Higher Education*, 28(1), 71-88.
- Davidovitch, N., & Soen, D.(2006) Using students' assessments to improve instructors' quality of teaching. *Journal of Further and Higher Education*, 30(4), 351-376.
- Fernand, D.B., & Adela, D.T.(2003). Evaluation of the university teaching/learning process for the improvement of quality in higher education. *Assessment & Evaluation in Higher Education*, 28(2), 165-178

Han, S.I., Kim, H.J., Lee, & J.Y.(2005). A comprehensive study of korean student's evaluations of university teaching. *The journal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23(3), 379-403.

Johnson, R.(2000). The Authority of the student evaluation questionnaire. *Teaching in Higher Education*, 5(4), 419-434.

Kim, M.H.(2005). Validity and reliability of lecture evaluation. *Asian Journal of Education*, 6(3), 1-24.

Kim, S.Y., Park, J.Y., Kim, J.C., & Kang, H.S.(2001). Daehak haksakwajung kangyi peong gaje siltae-bunsokul tonghan kyoyukupjok peongga mohyung-yeongu. Seoul :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Korean Institute of Medical Education and Evaluation (2006), The assessment and accreditation of medical education programs.

Lee, S.H.(2005). Reaction evaluation of educational /training program for validating learner's satisfaction, Kyoyukkwahaksa.

Margaret, E., & Diaa, R.(2002). Evaluating the quality of teaching in medical education: are we using the evidence for both formative and summative purposes? *Medical Teacher*, 24(3), 313-319.

Williams, B.C.(2001). Comparison of resident and medical student evaluation of faculty. *Teaching Evaluation & The Health Professions*, 24(1), 53-60.